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나타난 특징*



황 영 삼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hwangys00@hanmail.net)

I.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의 이주정착, 적응 그리고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재적응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이다. 사실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관한 연구는 적잖이 진행되어 왔지만 주로 연구대상 고려인의 국가적인 범위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치중된 나머지 인근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 거주 고려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고, 그 중에서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의 배경으로는 우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독립선언 이후 매우 폐쇄적인 국가정책을 폈던 탓에, 관련 자료의 수집이나 연구조사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려인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인근 국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7-A00102)

가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에 무관심을 유도했다는 점도 연구부재의 원인으로 언급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활발한 고려인협회 조직에 비하여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협회는 불과 2008년에 결성되어 대외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국가체제의 특성상 공식적인 사회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연구환경의 대외적 측면은 투르크메니스탄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Сапармурат Ниязов)의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2007년에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хамედوف(Гурбангуль Бердымухамедов)의 점진적인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과 맞물려 양국의 교류증대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지만 진일보하는데 일조하였다. 천연가스의 대외적 수출로 세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미 러시아, 터키, 이란, EU 및 중국 등과 활발한 경제교류를 진행시켜 오고 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에 치중된 한국의 경우 이제는 자원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국가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시키고 대외적 접촉 수준을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적 네트워크 기반이 매우 열악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국의 이익을 보장시켜줄 만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소수에 불과하지만 2천여 명 규모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려인협회가 결성되어 고려인 공동체의 조직화가 시도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 보면, 1991년 이후 소련의 붕괴로 인한 각 공화국들이 독립을 이룬 결과 각각 주권을 가진 공화국의 국민이 개념화되어 등장하였다.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들이 투르크멘어를 국어로 하고 투르크멘화 정책에 재적응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제외한 기타 공화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즉 20세기 중반에 소비에트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소비에트 문화와 지역 투르크멘 문화에 동화되어 삶을 영속화한 고려인들이 이제 다시 투르크멘어 강화정책과 투르크멘화 정책에 재적응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근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비교적 매우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들은 초기 러시아화(소비에트화)와 현재 투르크멘화의 '문화적 동화'라는 도전 속에서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 변화를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즉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들은 향후 민족정체성을 상실하고 주류 사회에 동화될 것인지에 관한 전망도 가능하다.

실례로 과거 소련의 구성공화국이었다가 독립국이 된 벨라루시의 경우 고려인들 대부분이 민족간 혼인으로 인한 혼혈 고려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일부는 역사적 조국인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향수는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현지 문화에 동화되어 있고, 한국어를 상실한 언어 문제의 경우 이들은 이미 민족정체성을 상실한 채 있다.¹⁾ 이러한 사례는 과거 소련을 구성했던 발트삼국,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는 인류학적 변동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인접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비교적 큰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로 소련 체제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공동체의 일환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독립국으로 변화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적 변동과 작은 공동체 규모로 인하여 현지인과의 동화 그리고 언어적 이질성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재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이 처음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현지 주류 사회에 대한 동화 그리고 최근 정치적 변화로 인한 재적응 문제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들에 관한 문제가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최근 5-6년 전부터 자원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양국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조금씩 증가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동포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단 정책적 차원을 떠나 과거 소련을 구성했고 지금은 독립국으로 전환된 국가에서 심각한 언어적 민족정체성 상실과 소규모 공동체 집단으로 전락한 고려인의 인류학적 변동에 관한 학문적 고찰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소련 시기의 고려인은 '소비에트 고려인

1) 벨라루시 고려인 문제는 다음을 참조. Тен, С. И. Корейцы Беларуси: Истоки, Традици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инск, 1997).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으로 간주되어 모국어는 러시아어, 생활문화적 기반은 한민족 문화, 러시아문화 그리고 현지 민족문화(가령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문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우즈베크문화 등)의 혼합으로 구성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삶을 영속화시켰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인 지금의 경우는 소비에트 고려인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각국의 명칭을 딴 고려인(가령 카자흐 고려인, 우즈베크 고려인, 러시아 고려인)으로 지칭되고 문화 변동 또한 격심하게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극 소수에 처한 고려인 공동체의 경우 현지 주류 민족문화에 완전히 흡수, 동화될 것인지에 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에 관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한 것이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연구방법과 방향

본 연구주제는 어떤 면에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연구의 부분으로서 진부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좀 더 고찰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 고려인 그리고 소비에트 고려인 문제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희소 지역의 고려인에 관한 연구로서 학문적 지평을 더 넓혀주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려인 연구는 이주사, 생활문화사, 정체성 고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간혹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고려인에 관한 연구와 연구조사 형태로서 에스토니아, 벨라루시 고려인에 관한 리서치가 진행된 바 있다. 고려인 이주사와 생활문화사 분야는 2008년에 관련 전문학자들이 동원되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대성한『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 하권)에서 거의 다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동 저서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의 독립국가연합 상태 하의 고려인들의 네트워크 문제나 개별 국가 고려인들에 대한 대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2005년)이다. 이 연구서 역시 희소 지역 고려인에 관한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세계 한민족 동포의 한상네트워크 측면에서 전 세계 한인들의 문제가 집적된『세계한상·문화연구 총서』(2007년)에서는 비단 고려인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재미동포 등 전 세계적인 한인네트워크를 아우르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에 관한 언급은 될 수 없었는데 연구당시만 하더라도 현지 국가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고려인 문제 전문가로서 카자흐국립대 김 게르만(Ким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교수의 저술 중 한국어로 소개된 두 권의 저서 『한인이주의 역사』(2005년), 『해외한인사 1945-2000』(2010년) 등에서는 풍부한 1차 사료와 고려인 당사자로서의 직접적인 체험에 입각하여 매우 분석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고려인에 관한 서술은 포함되었어도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에 관한 서술이 빠져 있다. 아마 자료의 부재와 네트워크의 미비로 인한 객관적이고 실증적 근거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시 카자흐스탄 고려인 학자 강 게오르기(Кан Георгий Васильевич) 교수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자 한 발레리(Хан Валерий Сергеевич) 교수의 저서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들 학자들은 강제이주 배경과 현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생활관습과 민족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역시 지역적 범위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머물고 있다. 러시아인 학자 니콜라이 부가이(Никлоай Фёдорвич Бугай) 박사, 고려인 학자 박 보리스(Пак Борис Дмитриевич)와 박 벨라(Пак Белла Борисовна) 부녀, 시할린 출신 한인 김영웅,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교수 리 블라디미르(Ли Владимир Фёдорвич) 등 이들 모두는 러시아 고려인들의 강제이주사 및 극동 지역 한인들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즉 고려인을 비롯한 외국인 학자들의 연구범주에도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들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인근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비하여 현지조사 접근성과 자료수집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국가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1차 자료의 수집이 매우 어려운 국가여서 문서확보가 어렵다. 현지에서의 인터뷰 또한 아직까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특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학자와 투르크멘 고려인 간의 인터뷰 내용이 고려인 관련 신문에 보도되었고, <레닌기치> 신문에 일정 시기동안 보도된 바가 있어서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적절히 인용하고 있지만 <레닌기치> 신문의 보도는 대략 1960~7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투르크멘 고려인 공동체의 전성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신문에는 투르크멘 고려인사회를 기층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논문 작성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레닌기치> 창간호(1938년 5월 15일)에서 종간호(1990년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수만 쪽에 이르는 기사를 읽고 스크랩하였다.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레닌기치> 기사가 소련 시기 투르크멘 고려인에 대한 자료로서 거의 유일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다.

또 하나는 공식 인구조사의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투르크멘 고려인 인구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소련에서 있었던 공식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고려인 통계를 알 수 있는 2012년의 인구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웠던 일이다. 조만간 이에 대한 통계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까지 연구를 미룰 수 없어서 현 상태에서 연구분석을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 중의 첫째 과제는 투르크멘 고려인 인구의 변동과 지역적 분포도에 관한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 북부지역인 다쇼구즈 주²⁾에 다수의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정착하게 된 것은 1937년의 강제이주에 이은 새로운 이주가 단행된 결과였다. 연이은 인구변동은 1959년과 1970년, 1979년 그리고 1989년에 행해진 소련의 전국 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인구분포도에서 파악된다. 문제는 소련 시기에는 하나의 주권공화국 하에 있었으므로 공화국 소속은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러시아에 있던 카자흐스탄에 있던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던 큰 문제는 없었다. 이들이 원하는 다른 공화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직장 또한 정부의 허가 하에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고려인 규모에 관한 문제를 규명하고 난 후에는 50여년에 이르는 정착과정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투르크멘인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하였던 과거 콜호즈의 흔적을 찾고 고려인 공동체의 구도를 파악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마지막 연구 방향은 독립 이후 발생한 새로운 체제 하에서의 재적응 즉 투르크멘 언어의 학습과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적 적응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민족문화에 대한 복구와 역사적 조국과의 관계 확립의 문제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과제에 속한다.

2) 투르크멘 고려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현재의 다쇼구즈 주이다. 이 행정구역은 1939년 11월 21일에 타샤우즈 주(Ташаузская область)로 등장했으며 1963년 1월 10일까지 존속하였다. 이후 투르크멘 공화국의 직할구역으로 변경되었다가 1970년 12월 14일에 다시 타샤우즈 주로 등장하였다. 즉 타샤우즈 주는 소련 시기의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명칭은 독립 이후인 1992년 5월 18일에 투르크멘어 방식인 다쇼구즈 주(Дашогузский велаят)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쇼구즈라는 표기를 범용적으로 선택했고 시기와 특징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샤우즈라는 표기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II. 투르크멘 고려인 인구구성의 변화

중앙아시아 지역에 최초의 한인이 정착하게 된 시기는 19세기 말이 분명한데 이는 1897년 제정러시아 인구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이때 매우 소수의 한인이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지역에 주로 거주했었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는 전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소한 소련의 첫 인구조사인 1926년까지 지속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한인(고려인)이 등장한 시기와 그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투르크멘 고려인 및 주요 민족 현황(인구조사 자료) ()은 백분위

	1939	1959	1970	1979	1989	1995
국가 총인구	1,251,883	1,516,375	2,158,880	2,764,748	3,522,717	4,437,600
투르크멘인	741,488 (59.2)	923,724 (60.9)	1,416,700 (65.6)	1,891,695 (68.4)	2,536,606 (72.0)	3,401,936 (76.7)
우즈베크인	107,451 (8.6)	125,231 (8.3)	179,498 (8.3)	233,730 (8.5)	317,333 (9.0)	407,109 (9.2)
러시아인	232,924 (18.6)	262,701 (17.3)	313,079 (14.5)	349,170 (12.6)	333,892 (9.5)	298,751 (6.7)
카자흐인	61,397 (5.0)	69,552 (4.6)	68,519 (3.2)	79,539 (2.9)	87,802 (2.5)	86,987 (2.0)
고려인	40 (-)	1,919 (0.13)	3,493 (0.16)	3,105 (0.11)	2,848 (0.08)	3,159 * (0.07)

*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선택한 고려인은 796명 (1995년 조사)

※ 출처: <http://geografictm.narod2.ru/biblioteka/perepis95> (2012.02.03. 검색)
<http://www.chrono-tm.org/en/?id=695> (2011.05.12. 검색)

※ 2012년 인구조사 통계는 아직 미발표됨.

위 도표에 나와 있듯이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의 존재는 최초로 1939년 소련의 인구조사 통계에서 나타나는데, 그 규모가 총 40명이었다. 이들은 1937년 극동러시아 지역 고려인들의 강제이주 이후에 카자흐 및 우즈베크 공화국을 거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적어도 소련의 1926년 공식 인구조사에서는 투르크멘 거주 고려인이 전무했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시각은 한때 모스크바대학교 산하 정보분석연구센터(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МГУ)의 전문가로 근무했던 랍

3) 1926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카자흐자치공화국에 42명, 키르기즈자치공화국에 9명, 우즈베크 공화국에 30명 등 총 81명의 고려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강제이주 전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된 고려인들을 염두에 두더라도 투르크멘 지역에는 타지키스탄 지역과 함께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고, 1937~38년에 걸쳐 고려인 이주자가 이들 지역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고려인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황영삼, “초기 고려인공동체 형성연구 - 유럽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43호, 2010. 23-45쪽.

산 나자로프(Равшан Назаров)의 견해와 일치하는데,⁴⁾ 나자로프 박사는 투르크메니스탄 소수민족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투르크멘 고려인에 대해서도 분석한 바 있다.

1924년에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걸쳐 소련의 구성공화국으로 성립된 투르크멘 공화국은 인근의 우즈베크 공화국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공화국이었다.⁵⁾ 극동 지역의 한인들이 강제이주 당한 이후인 1939년 인구조사 현황을 보면 투르크멘 공화국 내 투르크멘 민족의 비율은 59.2%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러시아인(18.6%), 우즈베크인(8.6%), 카자흐인(5.0%)들이 분포하고 있었고 고려인들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난 후의 인구조사(1959년)에서는 고려인의 규모가 1,919명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요인으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쟁 기간 동안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벼농사에 필요한 인력의 필요성에서 고려인들이 인근 공화국에서 많이 차출되었다. 투르크멘 민족의 주 산업은 유목민으로서의 목화산업이고 이를 위하여 소련 당국에서는 아무다리야 강에서 카라쿰 사막을 가로지르는 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때 전쟁시 군인들의 군복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목화가 필요하였고 적성 민족으로서 전선에 투입되지 못하던 고려인들이 일부 동원되었다.⁶⁾

다른 하나는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이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민족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공화국 경계를 벗어나서 거주한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러한 제한규정이 1956년에 흐루시초프의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고려인들의 소련 내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인근의 우즈베크 공화국이나 카자흐 공화국 거주 고려인들이 투르크멘 공화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고려인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⁷⁾

4) Пётр Волков,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Корё синмун>, 24.10.2012.

5) 이 복잡한 과정에 관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 Hasan Ali Karsar, "The Partition of Khoresmt and the Positons of Turkestanis on Razmezhevanie," EUROPE-ASIA STUDIES, Vol.60, No.7, September 2008, pp. 1247-1260.

6)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소련의 고려인들 중 일부는 후방에서 각종 노역에 동원된 이른바 '노동군'으로 차출되었다. 또한 우즈베크과 카자흐 공화국의 콜호즈와 슝호즈 농민 고려인들의 경우는 벼농사보다는 목화농사 명령을 받아 이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았다.

7)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관련 문서를 발굴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다른 공화국 고려인들의 소련 내 이주상황을 가늠해 보면 이러한 추론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물론 투르크멘 공화국 내에서 이루어진 고려인 인구의 이동을 일일이 추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부분적으로 밝혀진 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소련의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 작곡가였던 김 율리(Ким Юлий Черсанович, 1936년 생)의 경우 한때 투르크멘 공화국에 거주한 바 있었다. 1938년에 부친 정치탄압 희생자로 처형되고 모친이 투옥되자 16년 동안 러시아공화국의 칼루가 주와 투르크멘 공화국에 거주한 후 1954년에 모스크바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⁸⁾ 처음에는 모스크바에서 거주하다가 다음에 칼루가 주 그리고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율리 김이 거주했다는 것이다.⁹⁾ 이 경우를 보면 투르크멘 공화국 고려인의 일부는 강제이주와 관계없이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투르크멘 공화국으로 유입되는 고려인들의 규모는 1960년대에 더욱 더 확대되는데 그것은 바로 1961년과 1966년에 있었던 소련 공산당의 제22차 당대회¹⁰⁾ 및 23차 당대회¹¹⁾ 이름을 본 따 조직된 고려인 콜호즈 때문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우즈베크 공화국의 카라칼팍스탄 및 호레즘 주와 가까운 다쇼구즈 주(당시명 타샤우즈)에 고려인 거주자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0년의 소련의 인구조사에서는 투르크멘 거주 고려인이 모두 3,493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투르크멘 고려인 인구규모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였다(도표 참조).

1970년을 기준으로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투르크멘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3에 육박하였는데(65.6%) 전체 인구 2,158,880 명 중 1,416,700 명이 투르크멘인들이었다. 두 번째는 14.5%를 차지한 러시아인(313,079명), 세 번째는 8.3%를 기록한 우즈베크인들이었다. 지역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수도인 아쉬가바트에 그리고 우즈베크인들은 고려인들과 비슷하게 다쇼구즈주에 거의 많이 분포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는 공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 그리고 타 공화국으로의 이주로 인하여 투르크멘 고려인 인구가 감소하기도 하였는데 1979년의 인구조사 결과 3,105명으

8) <http://keuner.livejournal.com/458581.html> (2012.02.03. 검색)

9) 율리 김은 이후 1959년에 모스크바대학교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캄차카에서 역사 교원으로 활동한 후 다시 모스크바에서 거주하면서 역사를 강의한 특이한 이력의 소지자였다.

10) 1961.10.17. ~ 10.31. 개최. 1980년 무렵이 되면 소련 인민들이 모두 공산주의 체제를 완전히 경험하며 1965년부터는 개인에 대한 세금의 완전 면제를 공언함. 스탈린 격하 운동의 가속화.

11) 1966.3.29. ~ 4.8. 개최. 흐루시초프 실각 후 개최된 최초의 당대회. 최고지도자 타이틀을 당 제 1서기에서 서기장으로 환원하고 정치국을 부활함.

로 집계되었다. 이는 1970년 조사의 3,493명 보다 388명 줄어든 수치인 것이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1989년 소련의 마지막 인구조사에서 고려인 규모가 2,848명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¹²⁾

소련 해체이후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에서 자체적으로 행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위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고려인의 수가 3,159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1989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311명이 오히려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고려인의 수가 독립 직후에는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조사된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소련 시기에 인근 우즈베크 공화국이나 러시아 및 카자흐 공화국으로 파견되어 있다가 독립 이후 귀국하여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의 일원(국적 취득)으로 남기로 한 사람들이 일부 있지 않았을까 추정될 뿐이다.¹³⁾

단지 1995년의 자료가 주는 장점은 고려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소련 시기에 분명히 다쇼구즈 주에 대부분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레닌기치> 신문을 통하여 알려져 있었지만, 그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들었다. 관련 자료가 주는 통계수치에 의한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2) 1995년 인구조사 결과 투르크멘 고려인의 지역별 분포

주(시)	군/구	인구수	주	군	인구수
아쉬가바트		618	다쇼구즈		1,770
	아자틀릭	318		다쇼구즈 시	812
	코팻닥	200		악데페	225
	에트람	100		볼롬사즈스크	139
레밥		613		구바닥스크	120
	투르크메나바트(차르조우)	375		다쉬호즈스크	51
	세이디	121		일람린스크	31
	케르킨	1		쿠나우르겐치	227
	보이누진스크	29		니아조프	126
	사야트	16		타흐틴스크	39
	고부르닥	6	아할	43	

12) 대략 3천 명 수준의 투르크멘 고려인 규모는 1989년 기준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10만 여명), 우즈베크스탄(18만 여명), 키르기스스탄(2만 여명) 및 타지키스탄(1만 3천 여명)의 고려인 규모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이다. 최소한 투르크멘 고려인들의 사회적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벼농사를 통한 식량 공급이었고, 도시에서는 사무원과 기술직 등으로 활동하였다.

13) 1995년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은 초대 대통령 니야조프의 권력 강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받은 해이다. 니야조프 체제는 소위 독재체제에 가까웠고 일반적인 국민생활은 국가의 지나친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반체제 인사들은 국외로 추방되거나 자진 이주하는 경향이 많았고, 고려인들의 경우에도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만회할 만한 기회를 갖기가 무척 힘들었다.

	파라브	9	마리		115
	다르가나틴	13	전체 3,159		
	데이네우	7			
	사카르스크	12			

※ 출처: <http://geografictm.narod2.ru/biblioteka/perepis95> (2012.02.03. 검색)

위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1995년 당시 고려인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쇼구즈 주가 1,770명으로서 가장 많고 수도인 아쉬가바트와 이무다리아 강변의 레밥 주에 각각 618명과 613명, 아할 주에 43명, 마리 주에 115명 등 모두 3,159명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 5개 주 중에서 발칸 주의 고려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는 고려인들의 지역적 분포 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라는 점에 의미를 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쇼구즈 주는 소비에트 시기인 1950년대 후반 이후 꾸준한 고려인 인구유입이 발생했고, 그 근본적인 경제활동은 바로 농업이었다.¹⁵⁾

투르크메 고려인들의 지역적 분포는 우선적으로 다쇼구즈 주가 제일 높고(1,770명), 다음으로 수도인 아쉬가바트(618명)이다. 다쇼구즈 주는 전통적으로 고려인 농업인구가 높았던 지역으로서 쿠냐우르겐치 군과 악데페 군에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였다. 그러나 콜호즈-슥호즈 체제의 해체로 인하여 고려인들이 다른 지역 혹은 인근 국가로 이주해 나갔고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의 현상이 예측되고 있다. 수도인 아쉬가바트의 경우 공업과 상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려인들이 618명(1995년 자료) 거주하였다. 그 외 레밥 주, 아할 주, 마리 주 등지에도 소수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레밥 주(613명, 1995년 자료)를 제외하면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당시 투르크메 고려인 사회의 외형적 규모는 지역별로 볼 때 다쇼구즈 주와 아쉬가바트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쇼구즈 주 중에서도 악데페(225명), 쿠냐우르겐치(227명) 등 두 지역은 1960~1970년대에 고려인 콜호즈-슥호즈가 활동했었고 투르크메 고려인들의 다수를 형성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콜호즈-슥호즈 체제의 붕괴, 그

14) 2012년 기준 재외동포재단의 동포현황에 따르면 발칸 주에 66명의 한국인이 거주(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 고려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특이하다.

15)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던 다수의 투르크메인들이 목화 농사와 목축에 뛰어났다면 고려인들은 벼농사를 지을 줄 아는 민족이었다. 다쇼구즈 주의 고려인 벼농사 활동에 대해서는 <레닌기치>에서도 보도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리고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이들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 공동체 또한 축소되었던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던 고려인들은 다쇼구즈 시(다쇼구즈 주내의 인구를 보면 다른 지방보다 다쇼구즈 시의 인구가 제일 많다) 혹은 아쉬가바트 등의 도시로 이주하거나 타 국가로 국외이주를 함으로써 고려인 사회의 변동이 나타났던 것이다.

1995년 이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인구변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것이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2012년 12월에 실시되었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가 1~2년 내로 완성되어 공개된다면 정확한 고려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 고려인협회 회장이나 관계자의 추정치를 수용한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의 자료에 의하면 대략 1,000여명 정도의 고려인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¹⁶⁾ 물론 의문이 드는 수치임에 분명하다.

재외동포재단에서 2년 마다 파악하고 있는 동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 즉 2013년에 발행된 자료집으로 볼 때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총원은 1,057명 이라고 적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아쉬가바트(185명), 다쇼구즈 주(760명), 레밥 주(100명), 마리주(12명), 발칸 주(0명). 이러한 수치는 해당 대사관에서 고려인협회에 의뢰하여 파악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분석의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1995년의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공식인구가 3,159명이었는데 불과 17년 만에 1,057명으로 2,102명이나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집에는 아할 주의 고려인 통계가 누락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17년 기간에 2천 명이나 되는 고려인이 국외이주를 하기에는 당시의 대통령 니야조프의 시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일단 2012년 인구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¹⁷⁾

다만 1995년 통계에서 3,159명이던 고려인들을 언어별 기준으로 분류한 바에 의하면 796명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표1 참조),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협회에서 보는 2012년 기준 1,057명의 적정성 여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2천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국외로 완전히 이주했거나, 타민족과의 혼인으로 인해 민족표시를 타민족으로 기입한 경우, 또는 사망자 등으로 추정된다. 여러 가지 상

16)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현황』, 2013, 235쪽.

17) 다만 재외동포재단의 자료집에는 272명의 한국인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수도인 아쉬가바트에 62명, 마리주에 144명, 발칸 주에 66명 등이다. 수도에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으로 그 외 지역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국기업은 LG상사와 현대 엔지니어링 등 대기업 10여개이며, 한국인의 진출이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으로 볼 때 두 번째 요인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령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고려인-투르크멘인 혼인의 결과 세상에 나온 자녀들의 경우 국적(또는 민족)표시는 당연히 투르크멘인이 될 것이다. 또는 고려인-러시아인 혼인의 결과에도 동일하게 러시아인의 범주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 17년 동안 고려인들의 구성비는 국외이주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확실한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중요한 점은 소련 시기에 3천 명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던 투르크멘 고려인들의 규모가 현재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점이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투르크멘 고려인 인구는 1939년에 최초로 40명으로 밝혀진 이래 점진적 증가를 하다가 1960~70년대에 3천 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인근 중앙아시아 공화국에 거주하던 고려인 수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편이었고, 소련 해체 후 콜호즈-슈호즈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다수의 고려인 공동체가 해체의 길로 변화해 나갔다. 1990년대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3천 명 정도의 고려인이 파악되었으나, 현지 고려인협회가 추정하고 있는 현재의 고려인 인구는 1천 명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12년 12월에 있었던 투르크멘 주택-인구 총조사의 결과 분석이 끝나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어야 정확한 투르크멘 고려인 인구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17년 동안이나 인구조사가 행해지지 않았고, 니야조프 시기의 독특한 정치체제로 인하여 이와 같은 통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폐쇄적 체제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에서 2012년 공식자료 발표한 국가 현황에 관한 자료집인데, 이 자료집은 국가에 대한 대체적인 정보가 수록되고, 남녀별 인구구성이나 교육수준 등에 관한 것은 공개했지만, 국가 총인구수에 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¹⁸⁾

Ⅲ. 투르크멘 고려인 공동체의 활동 - 고려인 벼재배 콜호즈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고려인들의 인구 유입은 투르크멘 공화국의 북부 지역인 쿠냐우르

18)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집을 참조. State Committee of Statistics of Turkmenistan, Statistical Yearbook of Turkmenistan, 2012. PDF file, <http://www.stat.gov.tm/> (2013.10. 22 검색).

젠치(타샤우즈 주)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대되어 마침내 1962년 3월 10일, 최초의 벼농사 콜호즈인 '제22차 당대회' 콜호즈가 고려인 콜호즈로 조직되었다.¹⁹⁾ 콜호즈의 위치는 쿠냐우르젠치 군의 만차쿨리 별관에 있었는데, 본래 투르크멘에서 쿠냐우르젠치 지역은 목화 재배로 유명했지만 고려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벼생산 지역으로 정평이 나게 되었다. 김 겐나지 그리고리에비치가 콜호즈 회장(관리위원장)이었던 이 콜호즈의 초기 활동에 대해 조직이후부터 1964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3) '제22차 당대회' 콜호즈의 초기 업적

연도	1962	1963	1964
주거민 세대수	100 호	200 호	400 호
브리гада	-	-	14개
파종면적	200 ha	-	1,520 ha
파종작물	벼(180 ha), 옥수수	벼, 옥수수, 밀, 감자	벼(1,220 ha), 옥수수, 류체르나, 완두, 채소
국가납부량	-	19,000 톤	-
주요 시설	초기 출범	-	청사(300석 규모), 8년제 학교 기초공사, 250동의 주택, 라디오 중계소, 여관, 상점, 발전소(150kw) 등
공산당원수	13 명	13 명	20 명

※ 출처: '투르크메니아 북쪽에 세워지는 등대' (<레닌기치> 1964.6.10.), '제22차 당대회 콜호스 농부들의 새 성과' (<레닌기치> 1964.11.6.) 에서 정리.

위 도표에서와 같이 '제22차 당대회' 콜호즈는 순수하게 벼재배를 목적으로 한 집단농장으로서 이곳으로 고려인들이 전격적으로 투입되었다. 쿠냐우르젠치 지역은 아무다리아 강 하류 지역으로서 비교적 벼농사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우즈베크 공화국의 카라칼파키아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의 고려인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영농형태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사실 영농기술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카라칼파키아 지역 거주 고려인들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의 수도인 누쿠스

19) 콜호즈(집단농장), 슈호즈(국영농장) 등은 1920년대 말 스탈린의 농업집산화 정책으로 형성된 일종의 협동농장으로서 전자의 경영은 농민들 자체에서, 후자는 국가에서 담당하였다. 콜호즈 내의 조직단위로서 브리гада(작업반)가 있었는데 대략 하나의 콜호즈에 5~6개의 브리гада, 그리고 대형 콜호즈는 10개 이상의 브리гада로 구성되었다. 브리가지르는 브리гада의 장 즉 작업반장에 해당하는데 브리가지르의 업무능력이 매우 중요하였다.

20) 카라칼파키아 고려인들은 카자흐 공화국에서 아탈해를 거쳐 이주해 들어오면서 거주지가 형성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벼농사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에서 쿠냐우르겐치까지는 대략 40km에 불과한 근접한 거리였다.



김 겐나지 회장



리 바실리(제8호 브리가지트)

첫 해의 벼과종 면적과 고려인 세대 규모는 각각 180 ha 정도(전체 과종작물 면적은 200 ha)와 100 세대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63년과 1964년에 걸쳐 증가하면서 3년차에는 각각 1,220 ha(1,520 ha)와 400 세대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400 세대 정도면 각 세대 당 5~6명 정도라고 했을 때 대략 2,300~2,400 명의 고려인들이 이 콜호즈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인구 규모는 당시 투르크멘 공화국 내의 고려인들 중 거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규모이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 고려인 규모에 비해 공산당원의 수는 20명에 불과한데 이것은 콜호즈가 신생조직이었기 때문이다. 공산당원들은 주로 당 이념의 선전, 선동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콜호즈의 일반 농민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²¹⁾

1964년 당시 콜호즈는 모두 14개 브리가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리 바실리, 김 블라디미르, 전동준이 지도하는 브리가다들은 논농사에서 연평균 ha 당 3.5~3.7 톤씩의 수확을 달성하였고, 조 세르게이 브리가다는 5 톤을 수확하는 등 전체적으로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동시에 한 콘스탄틴, 정 니콜라이, 리 이반, 장 세르게이, 김 블라디미르, 원 안드레이 등도 목표량의 150~200%를 달성하였다.²²⁾

‘제22차 당대회’ 콜호즈의 활동과 성과는 해가 거듭될수록 활발해졌고 고려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레닌기치> 신문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풍부한 아랄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콜호즈도 있었다. 물론 현재는 아랄해 수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모두 해체되기는 하였다. 카라칼파키아 고려인 이주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 Л.Б. Хван, *Корейцы Каракалпакстана: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Нукус, Билим, 2004.

21) 콜호즈 내 선동부서를 보면 콜호즈 공산당 차석 서기(부비서)인 김 표도르를 비롯하여 김 빅토르(1호 브리가다 배속), 박 알렉산드르(8호 브리가다), 리승조(10호 브리가다) 등이 우수한 선전원으로 평가되었다. <레닌기치> 1964.11.6. 2면. “제22차 당대회 콜호즈 농부들의 새 성과.”

22) 윗 글.

“쿠냐우르겐치 라이온 만차골리 별판에는 제22차 당대회 벼재배 콜호즈가 있으며 콜호즈원들은 처너지에서 벌써 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다. 1967년에 1500 ha의 논을 파종하여 경작하고 있다. 우수한 농부들은 강 이반, 박 이반, 김만자, 최 바실리 등이 지도하는 브리гада이다. 이들은 ha당 4톤씩을 목표하고 있다. 이 별판에는 벼-류체르나 윤작제를 확장하고 있다. 가축사육 또한 실시되었다. 봄에 암 송아지 2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닭은 수천 마리에 달한다. 구락부에는 저녁마다 영화상영이 있으며 소인 예술단들이 공연하고 있다. 연극 아리랑과 장화홍련전 등은 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문화생활 또한 봄에 2 ha의 못을 파서 물을 넣고 고기들이 놀고 있고 저녁에는 노동자들이 먹도 감는다. 콜호즈 청년 체육단, 축구단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쿠냐우르겐치 지역 축구시합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²³⁾

위 기사를 보면 조직 5년차인 1967년이 되면 콜호즈의 벼농사 실적향상은 물론 콜호즈 내의 문화생활이 무척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농작물 외 가축사육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콜호즈의 형태는 카자흐 공화국이나 우즈베크 공화국의 저명한 고려인 콜호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양상이지만, 투르크멘 공화국 내에서도 이러한 콜호즈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2차 당대회 콜호즈(쿠냐우르겐치)의 벼 수확 장면.

※ 출처: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ашаузская область]

쿠냐우르겐치 지역에서 고려인들의 벼농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식량 공급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하자, 투르크멘 당국에서는 또 하나의 고려인 벼농사 콜호즈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1966년에 조직된 ‘제23차 당대회’ 콜호즈가 바로 그것이었다.²⁴⁾ 이 콜호즈는 쿠냐우르겐치 지역에서 멀지 않은 레닌스크 군의 막투마 이 별판에 위치하였다.

23) <레닌기치> 1967, 8, 23, 3면. “치너지 콜호즈에서.”

24) 1966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최된 소련 공산당 제23차 당대회는 브레즈네프가 권력을 장악한 뒤 개최된 첫 당대회였으며, 여기서 소련 최고지도자의 타이틀이 제1서기에서 다시 서기장으로 환원되었다. 개최된 당대회의 횃수를 신생 콜호즈의 명칭으로 삼는 경우가 당시 소련 사회에서 흔한 일이었으며,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만들어졌던 ‘제22차 당대회’ 콜호즈와 ‘제23차 당대회’ 콜호즈 등은 소련의 다른 공화국 지역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경우도 있다. 즉 동일 명칭의 콜호즈가 소련 내에서 일부 있었다는 것이다.

김 니콜라이 일리치가 회장인 이 콜호즈의 초창기 경지는 총 350 ha였으며, 아무다리아 강물을 끌어들이며 벼농사를 시행하였다. 콜호즈의 토양은 염분이 적고, 토양의 깊이도 깊으며 갈대가 잘 자라지 않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인근의 '제22차 당대회' 콜호즈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직의 초창기인 만큼 이 콜호즈의 구성원들은 주 택난을 겪고 있었다. 최 카스미르, 정동준이 지도하는 브리가다들의 성과가 좋았으며, 안덕환, 최원길, 허 세르게이 분조들에서는 ha당 5-6톤씩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설립원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당해년도 10월 20일 전까지 600 톤의 벼를 국가에 납부할 예정인 이 콜호즈의 새 마을에는 30채의 집들이 세워져 있으며, 2년차에는 논 경지면적을 1,750 ha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였다.²⁵⁾

'제23차 당대회' 콜호즈는 이후 5년이 지나면서 높은 벼농사 성과를 비롯한 성공적인 농작활동을 기록하면서, 쿠냐우르젠치 지역의 대표적인 콜호즈로 인근의 '제22차 당대회' 콜호즈와 함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레닌기치>의 보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1971년 콜호즈 결산을 보면 1,120 ha의 논에 3,378.6 톤의 벼를 수확하고 2,756.1톤을 국가에 납부하였다. 계획 초과 달성 120%였다. 톤당 벼의 원가는 270 루블이니 총 가액은 175,000 루블에 달한다. 우수 농부인 현 니콜라이, 한 발렌친, 김 블라디미르가 지도하는 브리가다원들이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들은 135~145% 초과달성을 하였다. 모두 7개 브리가다와 1개의 류체르나 및 채소재 배 브리가다가 조직되어, 총 파종면적 1,307 ha, 이 중에서 벼 면적은 1,180 ha, 류체르나 80 ha, 나머지는 채소, 옥수수, 참외, 수박을 재배하였다. 8월 25일 경에 벼이삭이 모두 패어났다. 림일, 연상욱, 한 발렌친, 김블라디미르 브리가다가 논 작황이 좋다. ha 당 3.5 톤의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다. 벼 추수는 9월 하순부터 11월 10일까지 이루어진다. 1971년부터는 류체르나 재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벼-류체르나 윤작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콜호즈에는 8년제 학교, 콜호즈 관리위원회 청사, 구락부, 도서관, 유치원, 진료소, 여관 등의 건물이 있다.”²⁶⁾

이 기사를 보면 '제23차 당대회' 콜호즈는 조직 이후 5년 동안 경지 면적이 확대되고

25) <레닌기치> 1966.9.30. 2면. “푸르크메니아에서의 벼 가을.”

26) <레닌기치> 1972.9.8. 2면 “푸르크메니아의 벼.” 타사우즈 주, 레닌스크 라이온 '23차 당대회' 콜호즈 농업기사장 최 블라디미르 작성.

벼생산을 증대시켰으며, 콜호즈 내의 학교, 도서관, 병원 등 생활지원 시설 또한 확충 시켰던 것을 알 수 있다. 8개의 브리가다는 벼, 야채, 과일 등을 재배하는데 성공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들은 대체적으로 벼농사 콜호즈의 생산방식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또 인근의 '제22차 당대회' 콜호즈의 경우 1972년이 되면 1,400 ha의 논에서 ha 당 5.5 톤씩의 수확물이 만들어졌는데, '제23차 당대회' 콜호즈가 1,120 ha의 논에서 약 3톤씩의 수확물이 산출된 것에 비하면 더 많은 양이었다. 특히 '제22차 당대회' 콜호즈의 제8호 브리가다(브리가지르-팀장, 조 세르게이)의 경우 28명의 단원이 벼농사 200 ha를 실행하여 ha 당 4톤씩을 수확하였다.²⁷⁾



〈레닌기치〉신문기사 (1972.9.8)

전체적으로 7개의 브리가다로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연상옥, 안덕환, 한 발렌친이 속한 브리가다가 최고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들은 목표량이 ha 당 2.7톤에서 초과하여 3.2~3.5톤까지 되어 있었다.²⁸⁾

이와 같이 타사우즈(다쇼구즈) 주 쿠냐우르겐치 군의 '제22차 당대회' 콜호즈와 레닌스크 군의 '제23차 당대회' 콜호즈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벼생산을 대표하는 고령인 콜호즈였다.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벼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던 민족은 당연히 고려인뿐이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국가적으로도 귀중한 존재였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통적인 유목생활에 근거한 투르크멘 여러 부족들은 가축 사육 및 밀농사 정도에 익숙하였고, 기타 우즈베크 민족들 또한 투르크멘인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27) 〈레닌기치〉 1972.10.6. 2면. "벼농사군들의 평일."

28) 〈레닌기치〉 1973.9.20. 2면. "벼추수를 하루바삐 다그치자."

콜호즈와 슥호즈 체제의 변화는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특정 콜호즈가 인근의 콜호즈를 흡수하여 팽창하기도 하고, 또 소멸당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형 콜호즈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²⁹⁾ 이 과정에서 순수 고려인 콜호즈들이 타민족 콜호즈와 통합되면서 콜호즈 구성민족에도 변화가 생겨 다민족 콜호즈가 생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은 거대한 콜호즈가 슥호즈 체제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제23차 당대회' 콜호즈가 바로 그런 변화를 경험하였다.

1970년대 말에 타사우즈 주 레닌스크 군의 '제23차 당대회' 콜호즈는 '제23차 당대회' 슥호즈로 개편되었고 벼재배를 지속하였다. 이것은 다민족 슥호즈였고, 슥호즈의 조직은 15개 브리가다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레지프 시리에브가 주도하는 브리가다도 편제되어 있었다. 이들 브리가다들은 1979년 가을에 9천 톤의 알곡생산에 성공하였고, 시리에브가 지도하는 제8 브리가다가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150ha에서 ha당 5톤씩을 수확했던 것이다.³⁰⁾ 헥타르 당 5톤의 생산량은 매우 높은 수확량에 속했으며 당시 기술로서는 4톤 이상이면 성공적인 수확으로 간주되었다.

'제23차 당대회' 슥호즈는 1980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기록하였다. 시리에프 브리가다는 헥타르당 4.4톤씩의 벼수확을 기록하였고, 15개 브리가다 모두에서 풍작을 달성하였다. 슥호즈 소속의 김 마케돈은 기술정비 브리가다에서 기계정비를 담당하고, 엄 올레그와 O. 클리초프는 매일 10~15톤씩 탈곡을 행하였다. 추수시기에는 슥호즈 소속원들은 당조직 담당자들을 포함하여 전원이 동원되는데 여기에는 슥호즈 조직의 당서기 최 블라디미르 막시모비치도 언급된다.³¹⁾

1984년 당시 '제23차 당대회' 슥호즈의 회장 강 클리멘트는 높은 생산성과 지도력을 평가받고 있었다. 이 슥호즈는 본격적인 다민족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리 올레그, 오라소브 아파잔, 유 아브로라 등이 대표적 브리가지르로서, 그리고 김 미하일, 까끼세프 아이뜨무라드, 아우팔리뵤브 온가르바이 등은 기계공으로서 사회주의 노력영웅으로 칭해졌다. 당시 슥호즈의 벼 생산목표량은 1만 톤 규모였다.³²⁾

29) 콜호즈의 통합 및 슥호즈 체제로의 전환은 비단 고려인 콜호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고 소련에서 전개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카자흐 및 우즈베크 공화국의 일부 고려인 콜호즈에서도 대형 규모로 통합되는 일이 많았다.

30) <레닌기치> 1979.10.31, 3면. "풍년든 논벌에서."

31) <레닌기치> 1980.9.25, 1면. "벼추수에 착수하였다."

32) <레닌기치> 1984.10.25, 2면. "용감성으로 충만된 평일."

이렇게 본다면 최초로 고려인 비생산 재배 콜호즈로 출범했던 '제23차 당대회' 콜호즈는 성공적인 생산활동의 결과 투르크멘 공화국 및 소련 당국의 인정을 받았고 이후 인근 콜호즈들과의 통합으로 대규모 다민족 슝호즈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제23차 당대회' 슝호즈로 거듭난 '제23차 당대회' 콜호즈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강 클리멘트의 지도 하에 투르크멘 공화국을 대표하는 고려인 농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고려인들 일부는 타민족 주도의 콜호즈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가령 '투르크메니아 공화국 40주년' 콜호즈는 타사우즈(다쇼구즈) 주 내의 대표적인 우즈벡 콜호즈인데 여기서 고려인들은 우즈벡인, 투르크멘인, 러시아인, 카자흐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³³⁾

물론 이러한 콜호즈-슝호즈 제도의 성공적인 진행은 소련 붕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속되었지만 우즈벡 혹은 카자흐 공화국과 동일하게 이러한 제도는 이미 1980년대부터 생산성 저하로 인한 개혁적 운영방식으로 병행되었다.³⁴⁾ 국가가 관리하는 슝호즈 제도는 소련 해체와 함께 자연적으로 위기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또한 예외는 없었다.

소련 시기 투르크멘 고려인 사회의 주축은 1980년대 말까지 농업 콜호즈와 슝호즈였으며 지역적으로도 타사우즈 주가 핵심이었다. 그렇지만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고려인들도 도외시할 수 없다. 투르크멘 공화국은 천연가스 개발로 특화되어 있는 소련의 구성공화국으로서 이와 관련한 고려인에 관한 기사가 <레닌기치>에 보도된 바 있다.

“마리 주 시틀리크 산지의 천연가스 채굴 시추기사로 활동한 성 알렉산드르는 바실리 안드레예비치 바우에르의 조수로 시추공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 지역은 여름에

33) <레닌기치> 1990.6.20. 2면. “우즈베크인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이 콜호즈의 회장은 사회주의 노동영웅이며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인 사들라 로스메토브였다. 투르크멘인, 우즈베크인 등 다민족으로 구성된 콜호즈였다.

34) 개혁적 운영방식이란 기존의 국가통제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독립채산제와 임차제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혁이었다. 획일적인 브리гада 체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농장(우자스토크)으로 구분하여 여기에 임차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사적 운영의 모를 가미하는 것이었다. 고려인 사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고본질' 방식도 이러한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편리하다.

대기 기온이 50도, 지표면 온도가 70도가 오르내리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의 고통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탐사대장 이반 바실레예비치 바실리에프가 지도하는 탐사대에 소속되어 가스채굴을 위하여 파견되었던 것이다.”³⁵⁾

이러한 사실은 투르크멘 고려인들 중 일부는 이미 농업이 아니라 공업 분야 혹은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철도관리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고려인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철도관리국 이쉬하바드(이쉬가바트) 분국의 김 레브 이바노비치는 분국 운행부 부장으로서 일하면서 1년 동안 관리국 부국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³⁶⁾

투르크멘 공화국 태생은 아니지만 인근 공화국인 우즈베크 공화국 타슈켄트 주 하르칙 군에서 출생한 남 올레그 세르게예비치(Нам Олег Сергеевич)는 1975년에서 1980년까지 투르크멘 공화국 행정부 산하 지질조사청의 석유탐사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³⁷⁾ 이 경우는 일시적 기간에 투르크멘 공화국 고려인 사회구성에 영향을 준 사례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투르크멘 고려인 사회에서 비단 농업분야 외의 타 분야에서도 활동을 했던 고려인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사례를 보여주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많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고려인이다 콜호즈, 슈호즈에서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IV. 독립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려인 - 재적응 문제

1991년에 소련 내에서 독립을 선언했던 투르크멘 공화국은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이 그대로 새로운 국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체제공고

35) <레닌기치> 1977.12.3. 2면. “시추마쓰페르 조수.”

36) <레닌기치> 1984.11.17. 3면. “그라피크를 준수하면서.”

37) 남 올레그는 현재 러시아연방 튜멘 주 북부접경의 한티-만시스크 자치구 의원(제5대 지방의회)으로서 경제정책, 지역발전 및 자연환경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통합러시아당 당원이다. 체첸 공화국의 그로즈니 석유대학교(1970-1975)를 나와 1975년에서 1980년까지 투르크멘 공화국 행정부 산하 지질조사청의 석유탐사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는 스타브로폴네프트가즈 엔지니어 및 과장으로 있었고 공학칸디다트 학위를 취득하였다.

<http://www.dumahmao.ru/deputies/V/nam> (2012.2.11 검색)

화와 개혁작업에 착수하였다. 헌법이 제정되고 국가기구의 틀이 정비되는 등 독립국 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5년에 영구중립을 UN으로부터 승인받는 등 러시아와 서방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인민회의(Khalk Maslakhaty)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권력구조를 표명하면서 니야조프 1인 체제를 강화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2006년 12월에 심장마비로 급사하기 전까지 권력 1인집중제와 폐쇄적 대내외 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이후 제2대 대통령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의 점진적 개혁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적 상황은 대체적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⁸⁾

소련의 붕괴와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으로 나타난 고려인 사회의 혼란은 예기치 못한 이산가족 현상, 국적문제, 경제적 곤란, 새로운 언어습득의 문제(러시아 경우 제외), 민족정체성 인지의 문제 등으로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전체 구성공화국에서 발견되었다.³⁹⁾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으며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한 재적응 문제가 고려인 사회에서 대두되었던 것이다. 대개 이를 위한 해결책은 해당 독립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든지 아니면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 러시아로 이주하든지 혹은 타 국가로 이주하든지 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되었다.⁴⁰⁾

사회적으로 직장이 안정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속적 거주를 선택할 것이지만 그

38) 독립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개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황영삼, “독립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적 변화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의 사회개혁 정책,” 『중앙아시아·카프카즈 연구』 제1권, 제2호, 2009, pp. 67-96.

39) 러시아 연방에 속한 고려인의 경우는 언어상의 문제가 없었지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어가 국어가 아닌 국가에 소속된 고려인의 경우는 언어상의 문제가 과거에 없던 문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 언어문제는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지대한 것이었다. 또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지로 흩어져 살고 있던 고려인 가족, 형제들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신생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본의아닌 이산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국적 문제까지도 발생하였다. 가령 우즈베크 국적을 가진 고려인이 우크라이나에서 고본질 농업을 하던 경우,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적을 가진 고려인이 극동 러시아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열었던 경우 새로운 국적 취득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40)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출생하여 러시아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이주의 한 예를 찾을 수 있다. 1979년 다쇼구즈에서 출생한 박 빅토리아 게오르기예브나 (Пак Виктория Георгиевна)는 2001년에 올란우데 국립공과대학교 동시베리아학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였다. 2001-2004년에는 러시아 학술원 산하 동시베리아연구원에서 아스피란트 과정을 마치고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여하였다. 2004년부터 동 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일하고 있다. (<http://www.rank.ru/index.php?view=article&catid=126%3A2011-04-02+19%3A33%...> (2012.02.01, 검색))

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주 혹은 어려운 삶을 선택해야 하였다. 이 경우 나타나는 재적응 문제는 투르크멘 언어의 학습, 체제변화에 따른 직장의 유지, 새로운 직업의 선택 등 현실적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콜호즈-솅호즈 체제의 폐지로 인한 농촌경제의 변화는 다쇼구즈 주를 중심으로 했던 고려인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였다.⁴¹⁾

러시아어로 발행되는 아리랑 신문에 보도된 투르크멘 고려인 가족의 상황변화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림 에두아르드와 김 타치야나 가족은 1950년대에 우즈벡 공화국에서 부모들과 함께 투르크멘 공화국으로 이주하였다. 에두아르드는 투르크멘 공화국의 전기기술학교를 졸업하였고 아내 타치야나 역시 간호중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타치야나는 유치원에서 간호선생님으로 일하였고 에두아르드는 권투코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들에게는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는데, 딸 올기는 교육전문대를 졸업하고 하바롭스크에 있는 사회인문대학을 졸업한 후 그곳에 정착하였다. 직장은 전공과 무관한 일이었다. 아들 세르게이는 카자흐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외국 학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르게이는 하바롭스크로 가서 건설기술자로 일하였다. 막내 아들 이고리는 아직 대학생이다. 2010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국립수력공학대학교에서 경제경영을 전공하고 있는데 졸업 후에는 고향인 다쇼구즈로 돌아갈 예정이다.”⁴²⁾

우즈벡 공화국에서 투르크멘 공화국으로 이주해 온 고려인 가족은 자녀들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나뉘어 생활하고 있다. 그만큼 투르크멘 고려인 인구의 감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사례에 속한다. 특히 니야조프 시기에는 터키 학위를 제외한 외국 학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 유학을 하려는 동기가 감소되었다.⁴³⁾ 위의 사례로 소개된 림 에두아르드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는 있지만 생활은 여유롭지 못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41) 현재 다쇼구즈 주의 8개 군에는 고려인 가정이 몇몇 남아있는 정도에 불과한데 한 고려인 노인에 의하면 대략 그 규모가 100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소련 시기에 다쇼구즈 주의 악테페 군에 있었던 고려인 솅호즈(제23차 당대회 솅호즈) 또한 해체된 지 오래되었고 고려인 농촌공동체가 사실상 와해되었던 것이다. <http://www.chrono-tm.org/en/id=695> (2011.05.12. 검색)

42) <http://www.arirang.ru/news/2012/12109.htm> (2012.12.20 검색)

43) 현 대통령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외국 학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으며 이에 많은 투르크멘 대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었다. 북경에만 5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쇼구즈의 전직 당간부이자 연금생활자인 리 라브렌티(Ли Лаврентий)는 “현재 이곳에는 의사, 교사, 변호사, 은행가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거의 모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독일로까지 나갔습니다. 여기 남아 있거나 나같이 퇴직한 고려인들은 시장에서 김치나, 야채, 치즈 등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운 좋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가게를 열기도 합니다.”⁴⁴⁾ 라고 하면서 현지에 남은 고려인들은 거의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동시에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한다. 고려인 여인 박 이리나(Пак Ирина)은 “우리에게 나갈 기회만 있으면 당장 나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누가 우릴 반갑니까? 이 점이 바로 우리 고려인 가정들이 다쇼구즈에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⁴⁵⁾ 라고 까지 하였다.

니야조프의 철권 정치가 극에 달했던 2004년의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문제를 다루던 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민족간 갈등은 시내 시장이나 번두리 상권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주로 다쇼구즈 주의 경우 투르크멘인들과 우즈베크인 간에 이권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다. 그 이면에는 주류 민족인 투르크멘인들이 소수민족인 우즈베크인들에 대하여 행하는 하나의 횡포로 비추어진다. 다쇼구즈주에서 고려인들은 투르크멘인, 우즈베크인에 이어 제3의 민족으로 간주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즈베크인들과 고려인들 간의 경쟁적 마찰 또한 발생하기도 한다.”⁴⁶⁾

위와 같이 일시적이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 이후 다쇼구즈 지역에서는 민족간 갈등이 표출되었다. 즉 국가의 주류 민족에 해당하는 투르크멘인들이 우즈베크인들이나 고려들을 경제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고려인과 우즈베크인과의 갈등 또한 체제 변화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쇼구즈 지역에서 높았던 고려인들의 경제적 위상은 점차 민족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문제로 인하여 도전받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나타난 변화이다. 2011년 9월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다쇼구즈 면방적공장 사장인 김 에릭(Ким Эрик)이 성희롱 문제

44) <http://www.chrono-tm.org/en/id=695> (2011.05.12, 검색)

45) <http://www.chrono-tm.org/en/id=695> (2011.05.12, 검색)

46) <http://www.chrono-tm.org/en/id=695> (2011.05.12, 검색)

로 경찰에 기소되었다. 김 에릭이 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것이다. 김 에릭은 다 소구즈 지방에서 유명한 고려인이다. 일전에 에릭은 방적공장 ‘세르다르(Сердар)’를 지도했고, 나중에 다소구즈에서 방적공장 건설부문의 총감독이 되었는데 이처럼 대규모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소수민족은 사실상 찾아보기 드물다. 일반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사태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대다수 사람들은 에릭이 거칠고 잔인한 면이 있고, 특히 업무추진에서는 매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당한 여성 30여명이 경찰에 고발하였고 에릭은 체포되어 구금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릭을 잘 알고 있는 에릭의 부친은 이 모든 사태가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⁴⁷⁾

김 에릭에 관한 보도는 해당 고려인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좋지 않은 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투르크멘 고려인 사회뿐만 아니라, 체제 변화와 함께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우즈벡 고려인 사회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⁴⁸⁾ 즉 체제 전환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독립국의 고려인들이 과거의 농업전문가에서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로 변신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류 민족들의 견제와 압력이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투르크멘 고려인협회는 인근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공화국과는 달리 조직의 출범이나 활동이 비교적 안될 만큼 미약한 상태에 있다. 협회가 모든 고려인 공동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민족의 단체로서 대외적으로 구성원들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소련 시기에는 민족주의 경향을 드러낼 수 없었던 이유로 민족을 토대로 한 협회구성이 불가능했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이후에는 각 소수민족의 특수성이 문화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에는 모스크바와 알마티를 중심으로 전소고려인협회 구성이 전개되어 나갔고, 이러한 경향은 소련 붕괴 이후 각 공화국별 협회 구성으로 이어졌다.⁴⁹⁾

47) http://tmnews.ucoz.com/news/v_dashaguze_po_obvineniju_v_seksualnykh_domogotelstvakh_zaderzhan_direktor_khlopkoprjadilnoj_fabriki_ehrik_kim/2011-09-28-596

48)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나타난 민족간 갈등 구도는 상권을 둘러싼 정부 혹은 우즈벡 기업가들의 고려인 사업가에 대한 지나친 견제로 나타났다. Hwang, Young-Sarm, "The Reality of Business Elite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 focused of the interrelations with the Political Power," 『슬라브학보』, 제26권 4호, (2011년), p. 269.

49)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자는 노력이 한국어 학습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로 나타났고 이에 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정치체제의 속성상 유달리 협회의 구성이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니야조프 대통령의 투르크멘 민족 우선주의적 정책때문이었다. 국경 지역인 다쇼구즈 주의 고려인 사회는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하에 있었는데, 초창기인 1990년대 전반기에 선교사들의 출입이 잦았기 때문이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서 이슬람 및 러시아정교 신앙을 제외한 종교단체의 활동은 거의 금지된 상태인데 독립 직후만 하더라도 부분적 활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주 선교대상이 이슬람 교도도 정교도 신자도 아닌 고려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고려인 공동체 구성은 당국의 감시를 받았던 것이다.⁵⁰⁾

니야조프 시기의 투르크메니스탄은 투르크멘 민족주의가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가적 교육과 정책강요가 뒤따랐다. 또한 고립적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타국가 혹은 타국가의 시민단체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다. 역사적으로 '셀주크조' 이래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했던 투르크멘 민족들이 부족주의적 분열주의를 혁파하고 하나의 통합된 민족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지만 지나친 민족주의적 정책은 소수민족의 위축된 활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⁵¹⁾ 투르크메니스탄 거주 카자흐인들이 국외이주를 단행하고 우즈베크인들이 국가를 떠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따라서 당연히 고려인들이 중심이 된 협회를 운영한다는 일은 투르크멘 민족주의의 강화에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국외로 이주한 고려인들 속에서 남아있는 엘리트들은 부족했고 그 수적 규모 또한 미미한 상태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려인 협회 구성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에 황 표도르를 회장으로 하는 고려인협회가 일시적으로 조직되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와해되었다.

투르크멘 고려인협회가 이쉬가바트에서 재조직된 것은 개방, 개혁적 성향의 대통

한 <레닌기치>의 신문기사가 1989년 하반기부터 1990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각국별 고려인협회(고려인 문화중앙) 구성에 관한 움직임도 보도되었는데 모스크바의 경우 역사학자 박 미하일 교수(작고), 김영웅 최고소비에트 대의원 등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50) 대개 미국국적을 가진 개신교 선교사들(시카고 출신)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1990년대 초반에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각국의 종교정책과 종교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인하여 거의 실패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다쇼구즈 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교단체들이 90년대 중반에 모두 추방되었다.

51) 셀주크 투르크조는 투르크멘 민족들이 세운 왕조로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국가였지만 13세기 초에 붕괴하였고, 이후 투르크멘 민족은 약 800년 동안 여러 개의 부족들로 흩어진 채 강대국 이란, 오스만 조, 러시아 등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특히 우즈베크인들이 세웠던 히바 칸국, 부하라 칸국의 지배도 받았다. 따라서 부족통합 즉 민족통합의 과제는 오늘날 독립국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의 근본과제로 부상하였다.

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등장하면서 가능하였는데 2008년에 비로소 협회가 법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⁵²⁾ 고려인 협회 회장 김 유리는 그루지아 오일가스 수출입회사의 아쉬가바트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부회장은 동 엘레나⁵³⁾와 안 레오니드 씨가 맡고 있다. 이 시기는 한국기업인 LG상사와 현대 엔지니어링 등이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지역의 탈황설비 공사에 중국 기업 등과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투자하여 진출했던 때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도 파견되어 일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투르크멘 고려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재조직된 고려인협회는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인 조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의 설치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동년 신학기에는 투르크멘 외국어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설치되어 한국전문가 양성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로 인하여 투르크멘 고려인협회의 활동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현재는 한국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고려인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파견하는데 관여하고 있다.⁵⁴⁾ 그렇지만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의 고려인협회의 활동과 비교하면 아직은 미미한 상태에 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경우에는 고려인협회 회장이나 고려인들 대표가 민주평동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국가에서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면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당국

52)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민족을 단위로 한 조직구성(협회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지에 있는 민족회의 혹은 민족센터 등의 기구가 없다. http://www.koreilbo.com/ru/261-zhizn_koresaram_turkmenistana.html (2013.5.2 검색)

53) 동 엘레나 투르크멘 고려인협회 부회장은 부친 동 니콜라이와 모친 김 엘리자베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937년 부모들은 강제이주되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게 되었다. 나중에 다시 이들 가족은 볼고그라드로 이주하여 양파와 수박 재배에 종사하면서 네 자녀들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엘레나의 오빠는 올란우데의 건축공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결혼하였으며 타지키스탄 투산베로 나갔다. 이 젊은이는 건축분야에 얼마간 일을 하였지만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인하여 다시 올란우데로 되돌아갔다. 엘레나의 언니는 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우즈베키스탄 누쿠스에서 살고 있다. 또 다른 언니는 아쉬가바트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였으며, 2002년에는 엘레나의 모친이 아쉬가바트에서 사망하였다. <http://www.arirang.ru/news/2012/12109.htm> (2012.12.20 검색)

54) 필자가 2010년에 한국에서 연수 중이던 투르크멘 고려인학생 2명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1명은 다쇼구즈 출신이었고, 다른 1명은 아쉬가바트 출신으로서 모두 여학생들이었는데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당시 인천에도 투르크멘 고려인 남학생이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은 협회장 아들이었다는 것이 동료 학생들의 말이었다. 투르크멘 학생들은 대학생까지 교복과 교모를 착용해야 하는데, 특히 여학생은 소매와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어야 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 한국의 자유로움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만났던 학생의 이름은 박 안토니나(쿠냐-우르겐치 거주, 한국외대 연수), 리 예카테리나(아쉬가바트 거주, 경희대 연수) 등. 이러한 만남을 주선해 준 성동기 교수(인하대)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

의 민족정책이 고려인협회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고려인협회의 구성 자체에 만족해야 수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 학생들이 모국을 방문하여 연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는데 니야조프 체제 하에서는 이마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통령의 개혁정책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협회의 활동 범위와 양국간의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현재 투르크멘 고려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의 하나는 인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과 동일하게 해당 국가언어를 배우고 모국어화해야 하는 일이다. 카자흐 고려인들에게는 카자흐어가, 우즈베크 고려인들에게는 우즈베크어가 러시아어를 대체하는 제1언어가 되었듯이 투르크멘 고려인들에게도 러시아어를 제치고 투르크멘어를 제1언어로 해야 한다.⁵⁵⁾ 기성 세대 투르크멘 고려인들의 언어는 러시아어가 제1언어로 되어 있어서 투르크멘어를 학습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타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처럼 국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고위직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투르크멘어에 능통해야 하므로 직장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언어문제인 것이다. 대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러시아어로 소통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기성 세대 투르크멘 고려인들은 공직자보다는 비즈니스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벼농사에 종사하는 고려인들도 거의 없다. 이것은 농업사회에서 이미 산업사회로 바뀌어 버린 이유에서 비롯된다.⁵⁶⁾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투르크멘어 교육의 강화와 투르크멘 민족의 역사에 관한 국가정책적인 노력이 매우 높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비단 투르크멘 민족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투르크멘 역사와 민족의 우수성

55) 러시아를 제외한 구 소련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새로운 언어환경의 변화일 것이다. 사실상 러시아어를 제외하고 타민족 언어에 소홀히 한 고려인들은 직장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시련일 것이며 재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속할 것이다. <http://asgabat.net/stati/nauka/turkmenistan-turizm/mnogonacionalnyi-turkmenistan-koreicy.html> (2013.10.20 검색)

56) 이제 고려인들이 농사 전문가라는 고정관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고려인들이 농업으로 소련에서 인정받았던 시대는 농업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우수한 고려인들이 농업 이외에 딱히 일할 수 있었던 분야가 제한을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고 거주이전이 자유롭게 되면서 산업, 학문, 전문분야 등에서 우수한 엘리트 고려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산업구조적으로도 농업에서 공업,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동시에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고려인들도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소련 고려인들이 농업전문가로 국가에서 인정받고 유명해 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고려인들이 농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거나 전문가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다.

에 관한 획일적인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투르크멘어 교육은 학생들 층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학생 세대 고려인들은 이미 이러한 교육과정에 익숙해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과연 역사적 조국의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다행히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허용⁵⁷⁾과 한국문화에 관한 행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투르크멘 고려인들은 조상들의 문화를 회복하고 역사적인 조국과의 연결 그리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게 표명하였다. 하지만 니야조프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소수민족의 문화회복이 사실상 제한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투르크멘 민족주의의 강화로 인한 국가적인 통제정책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직되었던 고려인협회도 그 기능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니야조프 시기(1991~2006)의 투르크메니스탄은 고립주의적이고 폐쇄적이며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다는 점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다. 이 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투르크멘 민족의 우월주의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국가통제가 매우 강했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소수 민족의 문화부흥이나 정체성 확립을 기대하는 일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카자흐인들과 우즈베크인들이 살던 고향을 버리고 모국으로 이주해버린 사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체제 하의 투르크메니스탄은 점진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 투르크멘 고려인 공동체도 모국과의 연결 및 전통적 명절 지내기와 민족문화의 복고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투르크멘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2011 글로벌 한인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1주일 동안 역사적인 조국을 방문함으로써 생애 최초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서울과 지방 도시를 방문하고 김치만들기, 다도 문화 익히기, 두부 만들기, 물고기 잡기 등을 체험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공부할 수 있었다. 이들 학생들에게는 한국방문이 역사적 조국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한국어 학

57) 2008년 9월에 개설된 아자디 투르크멘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과를 말한다. 학과가 발전하려면 이에 따르는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여 졸업생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출발점에 놓여 있는 과제이다.

58)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는 카자흐인에 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http://www.analitika.org/ca/national/1877-20060124070840346.html> (2013. 4. 2)

습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⁵⁹⁾



맨 우측이 동 멜레나 고려인협회 부회장

※ 출처: <http://www.arirang.ru/news/2012/12109.htm>

그리고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양국 간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면서 한국문화의 소개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려인들이 문화적으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였다. 2012년에는 양국관계 수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쉬가바트의 중앙민족박물관에서 6일 동안 한국문화와 예술에 관한 전시회가 펼쳐졌다. 이러한 일

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보기 드문 행사였으며, 소수민족으로서의 투르크멘 고려인들이 문화적 자긍심을 강화하는데 기http://tdh.gov.tm/index.php?id=5490 한편 사단법인 한-중앙아-코카서스 문화교류협회는 문화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독보적인 단체이다

그렇지만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민족문화센터나 민족을 단위로 하는 조직결성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투르크멘 고려인사회를 접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물론 고려인 사회자체는 민족명절을 씬다거나 음식을 해 먹거나 전통 의복에 대한 복구 열의가 높다. 단지 이러한 움직임이 비공식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민족유대를 강조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상황에 대한 무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인근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의 상황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 바로 투르크멘 고려인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속성이라 하겠다.

59) 5명의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참가한 동포 학생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은 투르크메니스탄 체제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관한 기사는 다음을 참조. <http://www.arirang.ru/news/2012/12109.htm> (2012.12.20 검색)

V. 결론

투르크멘 고려인 사회는 인근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고려인 사회와는 달리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고려인 사회규모가 비교적 작아 연구필요성 면에서 낮은 수준에 있었던 것과, 또 하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체제가 독특하여 연구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국교를 체결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니야조프의 폐쇄적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접근이 그 만큼 늦어진 것은 투르크멘 고려인에 관한 연구 또한 더디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신흥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세계 강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 또한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2008년부터 우리의 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하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증중하면서 투르크멘 고려인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본문에서도 고찰되었듯이 투르크멘 고려인 사회의 형성은 1937년 강제이주 사건 이후부터이며 우즈베크 공화국이나 카자흐 공화국으로 이주된 고려인들 중 일부가 투르크멘 공화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39년 소련의 인구조사 결과 40명의 고려인이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소련에서 행해졌던 인구조사 결과 각각 1,919명, 3,493명, 3,105명, 2,848명 등으로 변화되었고 전체 인구대비로 볼 때 투르크멘 고려인은 극히 미미한 0.1% 수준에 머무르는 소수민족이다. 독립 후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1995년에 행해진 첫 인구조사에서는 3,159명으로 파악되었다. 1990년대에 투르크멘 고려인들의 국외이주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시행된 주택-인구 총조사의 결과가 기다려지는 것이며, 정확한 통계는 결과분석이 끝나고 공식 발표가 난 후에 확정될 것이다.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고려인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 것은 1960년대에 조직된 '제 22차 당대회' 콜호즈와 '제 23차 당대회' 콜호즈 때문이었다.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유일한 벼농사 가능 민족인 고려인들이 인근 공화국에서 타사우즈(다쇼구즈) 주의 쿠나우르겐치 지역과 레닌스크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 오면서 공동체가 확대되었던 것

이다. 이들의 활동상은 <레닌기치> 신문에 소개되어 본 논문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투르크멘 민족과 우즈벡 민족들의 주 생산 분야가 목화농사와 축산업이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의 벼농사는 식량확보의 차원에서 매우 소중하였고 국가적으로도 장려되었다. 고려인 콜호즈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보다 대규모인 솅호즈 체제로 전환되면서 다민족적 성격을 갖추어 고려인, 우즈벡인, 카자흐인, 러시아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일부 고려인은 기술자나 전문직으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일부는 러시아에서 파견되어 오기도 했으며 또 일부는 투르크멘 공화국 외의 다른 지역으로 파견가기도 하는 등 인구이동이 나타났다.

소련이 해체된 후 독립국으로 재편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니야조프 대통령 시기의 폐쇄적 고립정책으로 인하여 인근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고려인 공동체가 위축되었다. 콜호즈 및 솅호즈 체제의 붕괴로 농촌공동체가 해체되고 투르크멘 민족주의의 강화로 역사적 모국과의 관계 또한 모색할 수 없었는데 이 점이 인근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와 판이하게 달랐던 점이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의 개혁정책의 결과 투르크멘 고려인 사회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어 모국에 유학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한국문화의 소개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능하게 되어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민족을 단위로 하는 단체설립이나 문화센터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인협회 또한 비공식적 차원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점은 투르크멘 고려인 사회의 큰 특징에 속하며 우리가 접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 <레닌기치> 1964.6.10. 2면. '투르크메니아 북쪽에 세워지는 등대'
- <레닌기치> 1964.11.6. 2면. "제22차 당대회 꼴호스 농부들의 새 성과."
- <레닌기치> 1967.8.23. 3면. "치너지 꼴호즈에서."
- <레닌기치> 1966.9.30. 2면. "투르크메니아에서의 벼 가을."
- <레닌기치> 1972.9.8. 2면. "투르크메니아의 벼."
- <레닌기치> 1972.10.6. 2면. "벼농사군들의 평일."
- <레닌기치> 1973.9.20. 2면. "벼추수를 하루바삐 다그치자."
- <레닌기치> 1977.12.3. 2면. "시추마쓰제르 조수."
- <레닌기치> 1979.10.31. 3면. "풍년든 논밭에서."
- <레닌기치> 1980.9.25. 1면. "벼추수에 착수하였다."
- <레닌기치> 1984.10.25. 2면. "용감성으로 충만된 평일."
- <레닌기치> 1984.11.17. 3면. "그라피크를 준수하면서."
- <레닌기치> 1990.6.20. 2면. "우스베크인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 그 외 투르크멘 고려인 혹은 투르크멘 공화국 관련 <레닌기치> 기사 발간일.

1950.9.20. 1951.7.6. 1951.9.21. 1951.11.25. 1952.3.15. 1952.4.22. 1952.3.31.
1952.6.18. 1952.6.21. 1954.1.29. 1957.8.13. 1961.12.19. 1964.6.10. 1964.10.24.
1964.11.27. 1971.4.20. 1971.6.22. 1972.8.25. 1972.9.9 1972.9.15 1972.9.23. 1973.7.12.
1973.10.3. 1973.12.5. 1974.3.15. 1974.10.11. 1974.10.24. 1974.11.12. 1974.11.16.
1974.11.19. 1975.1.28. 1975.9.11. 1975.12.12. 1976.3.25. 1976.6.5. 1977.6.14. 1977.7.1.
1977.11.18. 1978.1.13. 1978.2.14. 1978.2.16. 1978.4.19. 1978.6.15. 1979.9.8. 1979.9.11.
1979.12.6. 1980.8.23. 1980.9.24. 1980.10.28. 1980.11.8. 1980.11.26. 1980.11.27.
1980.11.29. 1983.2.23. 1984.10.26. 1984.11.20. 1984.12.21. 1987.4.25.

- 국사편찬위원회 편,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 하권)(국사편찬위원회, 2008년).
- 국사편찬위원회 편,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9).
- 김 게르만 저, 황영삼 역, 『해외한인사 1945-2000』(한국학술정보, 2010).

- 황영삼, “초기 고려인공동체 형성연구 - 유럽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 제43호, 2010, 23-45쪽.
- 황영삼, “독립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적 변화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의 사회개혁 정책”, 『중앙아시아 · 카프카즈 연구』 제1권, 제2호, 2009, 67-96쪽.
- 황영삼, 『재외동포사 연표: 러시아 · 중앙아시아』(국사편찬위원회, 2009).
- Hasan Ali Karsar, “The Partition of Khoresm and the Positons of Turkestanis on Razmezhevanie,” *EUROPE-ASIA STUDIES*, Vol.60, No.7, September 2008, pp. 1247-1260.
- Hwang, Young-Sam, “The Reality of Business Elite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 focused of the interrelations with the Political Power,” 『슬라브학보』, 제26권 4호, (2011년), pp. 257-282.
- Волков, Пётр.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Корё синмун>, 24.10.2012.
- Тен, С. И. Корейцы Беларуси: Истоки, Традици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Минск, 1997.
- Хван, Л.Б. Корейцы Каракалпакстана: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Нукус, БИЛИМ, 2004.
- <http://keuner.livejournal.com/458581.html> (2012.02.03. 검색)
- State Committee of Statistics of Turkmenistan, Statistical Yearbook of Turkmenistan, 2012. PDF file. <http://www.stat.gov.tm/> (2013.10. 22 검색).
- <http://geografictm.narod2.ru/biblioteka/perepis95> (2012.02.03. 검색)
- <http://www.dumahmao.ru/deputies/V/nam> (2012.2.11 검색)
- <http://www.rank.ru/index.php?view=article&catid=126%3A2011-04-02+19%3A33%..> (2012.02.01. 검색)
- <http://www.chrono-tm.org/en/id=695> (2011.05.12. 검색)
- <http://www.airang.ru/news/2012/12109.htm> (2012.12.20 검색)
- http://tmnews.ucoz.com/news/v_dashaguze_po_obvineniju_v_seksualnykh_domogotelstvakh_zaderzhan_direktor_khlopkopriajdilnoj_fabriki_ehrik_kim/2011-09-28-596 (2011.9.28 검색)
- http://www.koreilbo.com/ru/261-zhizn_koresaram_turkmenistana.html (2013.5.2 검색)
- <http://www.airang.ru/news/2012/12109.htm> (2012.12.20 검색)

- <http://asgabat.net/stati/nauka/turkmenistan-turizm/mnogonacionalnyi-turkmenistan-koreicy.html> (2013.12.20 검색)
- <http://www.analitika.org/ca/national/1877-20060124070840346.html> (2013.4.2 검색)
- <http://tdh.gov.tm/index.php?id=5490> (2013.12.20 검색)

: 14. 1. 7.

: 14. 1. 24.

: 14. 2. 5.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thnic Korean Community in Turkmenistan

Young Sam Hw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words

ethnic Korean community in Turkmenistan, Tethnic Korean people (Koryoin), Turkmen Koreans, Kunya-Urgenchi distri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thnic Korean community in Turkmenistan that is comparatively unknown to not only ordinary people but specialists concerned with national issues. As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urkmenistan intensifies, the need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ethnic Korean people (Koryoin) rises in order to select efficient strategy for improving conditions for South Koreans who engage in academic work and business.

The first community of Turkmen Koreans was established in Tashauz region by immigrants from Karakalpakia (Uzbekistan) after the '1937 deportation' of Far Eastern Koreans in the then USSR. According to the Soviet census of 1939, it was recorded that 40 Koreans resided there in Turkmen SSR. And as times passed, the size of Korean population became bigger and bigger: 1,919 (1959), 3,493 (1970), 3,105(1979), 2,848(1989). The last official record by census in 1995 showed the ethnic Koreans as 3,159 persons. As of now, the exact size is not known, though lesser, but the coming result of the 2012 census will be helpful.

The main activities of Turkmen Koreans performed in 'the 22nd Congress of CPSU' Kolkhoz and 'the 23rd Congress' Kolkhoz that the former was located in Kunya-Urgenchi district and the latter in Lininsk district in Tashauz region. Koreans were successful and famous for producing rices because they were then the only nation who could cultivate rices in Turkmen SSR. Through the Korean newspaper, 'Lenin Kichi' that was published from 1938 to 1990, I can obtain materials concerned with these Kolkhoze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new problems of Turkmen Koreans took place: the necessity of studying Turkmen language, the preservation of Korean

national culture and the adaptation to the newly conditions of economic system. But most of all, it is noted that the organization of Korean Association in Turkmenistan is not yet allowed as a legal group. Even establishing a center with the meaning of nationality is prohibited by the government. That is the present situation in Turkmen Korean community nowadays.